

프랑스 혁명과 전쟁*

- 정복전쟁 포기 선언의 역설 -

박 윤 덕

- | | |
|--------------------|----------------|
| I. 서론 | III. 반혁명과 혁명전쟁 |
| II. 구체제 유럽과 프랑스 혁명 | IV. 결론 |

I. 서론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입법의회(Assemblée Législative)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선전포고 안(案)을 가결했다.¹⁾ 입법의원들은 이 전쟁이 속전속결로 혁명 프랑스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전쟁은 그들의 예상과 달리 4반세기 동안 전(全) 유럽을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을 대전(大戰)이 되었고, 결국 “혁명의 유산 집행인”이었던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 자체를 끝장내고 말았다. 동맹국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근대 유럽의 대(大)전쟁들이 그러했듯이,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을 끌어들이면서 전쟁에 관한 당대의 기록들을 대부분 잡아치웠다.

첫째, 휴전과 개전을 반복하면서 1815년 워털루 전투까지 계속될 전쟁은 기간 면에서 두드러진 것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는 이전의 전쟁들과 비교할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 S1A5A2A03034238).

1)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Recueil complet des débats législatifs et politiques des chambres françaises*, t. 42(Paris, 1893), pp. 217-218.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Franz II)가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선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왕’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는데, 745명의 입법의원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0명에 불과했다.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최초의 세계대전’이라 할 만한 7년 전쟁 때 이미 전장(戰場)이 광역화되어 유럽, 북아메리카, 인도 등 세계 도처에서 전투가 벌어졌지만, 실제 전투를 치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 혁명전쟁과 뒤이은 나폴레옹 전쟁 동안에는 포르투갈에서 러시아까지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카리브 해에서 이집트까지 해외 식민지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 한마디로 ‘확대된 유럽’ 거의 전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투입된 병력 규모나 작전 지역 면에서 전투 규모 자체가 매우 커졌다. 러시아 원정에 나섰던 나폴레옹의 ‘대군(Grande Armée)’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10여만 명 이상의 병력이 단일 전투에서 맞붙어 싸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혁명전쟁이 확대되고 나폴레옹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병력 규모는 점점 더 커졌고, 작전 반경도 그 만큼 확대되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게 되었다. 혁명전쟁 초기인 1792-1794년에는 단일 전투에 최대 4~5만 명의 프랑스 군이 투입되었다면,²⁾ 1800년 12월 뮌헨 인근의 호엔린덴(Hohenlinden)에서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양측 모두 5~6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승패를 겨뤘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적게는 7~8만에서 많게는 15~20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전장을 누볐다.³⁾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전투 수행 단위의 규모가 사단(division), 군단(corps), 군(armée)으로 점점 더 커졌고, 그에 따라 작전 반경도 크게 확대되었다.⁴⁾ 아우스터리츠(Austerlitz) 전투 당시

2) 1793-1794년에 벌어진 전투에서 교전국들의 병력은 전투 당 평균 8만 7천 명에 달했는데, 1792년 9월 발미(Valmy)에서는 3만 4천여 명의 오스트리아군과 5만 2천여 명의 프랑스군이 맞붙었고, 1793년 10월 바티니(Wattignies)에서는 주르당(Jean-Baptiste Jourdan) 장군 휘하의 4만 5천여 병력이 3만여 명의 오스트리아군과 대적했다. 참고로 아메리카 독립전쟁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대륙군은 8년 동안 약 25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지만, 상시 병력은 최대 9만 명을 넘지 못했고, 단일 전투로는 요크타운에 투입된 2만 명이 최대였다. 그나마 그 가운데 8천 명은 프랑스군이였다. 18세기 프랑스의 군사전략가 기베르(Jacques-Antoine-Hippolyte de Guibert)는 야전군 병력의 상한선을 5만 명 정도로 잡았다. Alvin D. Coox, “Valmy”, *Military Affairs*, Vol. 12, No. 4(Winter, 1948), p. 200; 이용재, 『아우스터리츠의 태양: 나폴레옹 전쟁의 군사적 의의와 전쟁 개념의 변화』, 『서양사연구』 제35집(2006), 33, 60쪽.

3) 나폴레옹은 1805년 10월 울름(Ulm)에서는 15만 명, 그 해 12월 아우스터리츠에서 7만 2천 명, 1808년 에스파냐 침공 때에는 친히 20만 명의 병력을 지휘했다. 이용재, 나폴레옹 전쟁과 에스파냐 『케양: 게릴라전의 탄생』, 『동국사학』 제49집(2010), 401쪽.

4) Steven Ross, “The Development of the Combat Division in Eighteenth-Century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다부(Louis Nicolas Davout) 장군 휘하의 3군단은 빈(Vienne)으로부터 140킬로미터를 행군해서 48시간 만에 전장에 당도했는데, 이는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나폴레옹의 치밀한 작전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⁵⁾

셋째, 전투 규모 확대의 당연한 결과였지만,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콕(Richard Cobb)은 1795-1801년 사이에 혁명전쟁으로 약 140만 명의 프랑스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했다.⁶⁾ 여기에 나폴레옹 전쟁의 희생자까지 합치면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한다.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연구자에 따라 많게는 프랑스 및 교전 상대국 주민 520만 명, 적게는 프랑스 인 87만 명이 전쟁의 직·간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중첩된 기간을 고려해서 추산해 볼 때, 혁명전쟁으로 시작된 24년간의 전란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200만에 가까운 프랑스 인이 목숨을 잃었고⁷⁾, 교전 상대국들의 희생도 그에 못지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큰 틀에서 보면, 프랑스 혁명전쟁은 17세기 말에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두 번째 백년전쟁”⁸⁾의 마지막 국면의 시작으로서, 이전에 벌어진 전쟁들의 일반적 양상을 따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전쟁”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혁명전쟁이 이전의 전쟁들과 달리 훨씬 더 심각한 인

French Armies”,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4. No. 1(Spring, 1965), pp. 84-94; Jeremy Black, “Military Organisations and Military Change in Perspective”,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2, No. 4(Oct, 1998), pp. 880-881.

- 5) 나폴레옹은 “전격전”의 선구라 할 만큼 기동전 전술을 잘 구사했다. 신속한 이동으로 전투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제한된 병력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그에 따르면, “전략이란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인데, 나는 공간보다 시간을 더 아낀다.” “최고의 군대는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행진하는 군대이다.” 이용재, 『아우스트리츠의 태양...』, 50-52쪽.
- 6) Richard Cobb, *Death in Paris 1795-1801*(Oxford, 1978), p. 7. T. C. W. Blanning,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New York, 1986), p. 69에서 재인용.
- 7) 1842년 푸이에(Pouillet)는 1836년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을 근거로 혁명과 제정기에 적어도 130~140만 명의 남성이 희생되었다고 추산했다. Jacques Houdaille, “Pertes de l’armée de terre sous le premier Empire, d’après les registres matricules”, *Population*, t. 27, no. 1(Jan.-Fev. 1972), pp. 27-28.
- 8) 1689년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전쟁의 발발로부터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의 종결까지 18세기의 전쟁들을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쟁탈전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관해서는 H. M. Scott, “Review: The Second ‘Hundred Years War’, 1689-1815”, *The Historical Journal*, Vol. 35, No. 2(June 1992), pp. 443-469를 참조 바람.

명손실을 초래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전통적인 영토 분쟁과 패권 다툼에 프랑스 혁명으로 야기된 이념투쟁이 더해지면서 혁명전쟁은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종교전쟁’이 되었다. 혁명을 지켜내야 하는 프랑스에게도, 혁명 이념의 확산을 저지해야 하는 대(對)프랑스 동맹군에게도 물리칠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것이다. 18세기의 전쟁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섬멸전’이 나폴레옹 전쟁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혁명 프랑스는 전쟁 승리를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국민총동원령(levée en masse) 형태로 잠정적인 징병제를 실시하고,⁹⁾ 늘어난 군대를 부양하기 위해서 전시경제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군비 강화를 위해서 ‘국방과학’이라 불리게 될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이 모든 것에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결과 전쟁의 양상뿐만 아니라 전쟁 당사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프랑스 혁명이 러시아 혁명에 자리를 내어주기 전까지 혁명의 본보기였듯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 혁명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사의 또 다른 전환이 나타날 때까지 전쟁사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는 연구 주제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시기의 전쟁과 관련해서 참조할 수 있는 우리말 자료로는 나폴레옹 전쟁에 관한 단편적인 논문과 번역서 몇 편뿐이고,¹⁰⁾ 그나마 혁명전쟁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서구 학계에서도 프랑스 혁명전쟁은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는 낡은 주제가 되었다. 20세기 말에 나온 몇 안

9) *Archives parlementaires*, t. 72(Paris, 1907), pp.674-675. 1793년 8월 23일 국민공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적이 공화국 영토에서 축출될 때까지 모든 프랑스 국민은 군복무의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면서 18~25세의 모든 미혼 남성을 징집하였다. 이 조치는 전시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국민개병제와는 다르다.

10) 서정복, 「나폴레옹 전투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 『서양사학연구』 제21집(2009), 117-149쪽; 이시연, 나폴레옹전쟁 시대 러시아의 ‘여성’ 기병장교 두로바, 『역사학보』 제204집(2009), 269-313쪽; 이용재, 「‘아우스터리츠의 태양’: 나폴레옹 전쟁의 군사적 의의와 전쟁 개념의 변화」, 『서양사연구』 제35집(2006), 31-63쪽; 이용재, 나폴레옹 전쟁과 에스파냐 ‘궤양: 게릴라전의 탄생」, 『동국사학』 제49집(2010), 399-429쪽; 송경근,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입과 알-아즈하르의 저항」,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2집(2001), 225-248쪽; 그레고리 프리몬-반즈·토드 피셔, 『나폴레옹 전쟁: 근대 유럽의 탄생』, 박근형 역(플래닛미디어, 2009).

되는 연구들은 전쟁사의 관점을 버리고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군대의 구성이나 병사들의 생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다.¹¹⁾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혁명전쟁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권위자인 블레닝(T. C. W. Blanning)이 권고했듯이, 19세기 후반의 연구 성과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¹²⁾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 연구가 보여주듯이, 전쟁에 관한 역사가들의 관심은 주로 전쟁 발발의 원인에 관한 문제에 쏠려 있다. 이른바 ‘기원(起源)’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전쟁의 책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되고 모순되는 다양한 견해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 점에서는 프랑스 혁명전쟁도 예외가 아니어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혁명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주장하는 바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치·외교사적 관점에서 참전국들의 상황과 동기를 분석하고,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당연히 1792년 전쟁의 당사국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중 어느 나라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놓고 입장이 갈린다. 독일의 시벨(Heinrich von Sybel)과 트라이츠크(Heinrich von Treitschke)는 혁명 프랑스의 도발에 전쟁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시벨은 프로이센과 오

11) Gunther Rothenberg, “Review: Soldiers and the Revolution: The French Army, Society, and the State, 1788-99”, *The Historical Journal*, Vol. 32, No. 4(Dec. 1989), pp. 981-982.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Jean-Paul Bertaud, *La Révolution armée: les soldats-citoyen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Paris: Robert Laffont, 1979); Jean-Paul Bertaud, *Valmy, la démocratie en armes*(Paris: Gallimard, 1989); Jean-Paul Bertaud, *La Vie quotidienne des soldats de la Révolution*(Paris: Hachette, 1985); Louis Bergès, *Résister à la conscription, 1798-1814: le cas des départements aquitains*(Paris: CTHS, 2002); Emmanuel Hublot, *Valmy ou la Défense de la nation par les armes*(Paris: Fondation pour les études de défense nationale, 1987); John A. Lynn, *The Bayonets of the Republic: motivation and tactics in the army of revolutionary France, 1791-94*(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4).

12) T. C. W. Blanning,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p. 69. 19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전쟁에 관한 연구는 주요 전쟁 당사국 가운데 하나였던 프로이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외교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전쟁의 기원과 책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안타깝게도 필자는 독일어를 읽을 수 없어 이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블레닝에 의존했음을 밝힌다.

스트리아는 혁명 발발 후 2년 동안 프랑스 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했으며, 지롱드파가 전쟁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혁명 프랑스와 평화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레오폴드 2세(Leopold II)는 1791년까지 국내의 소요와 발칸에서의 전쟁, 그리고 동유럽 문제에 매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혁명에 그렇게 적대적이지도 않았다.¹³⁾ 트라이츠허가 볼 때, 브리소(Jacques Pierre Brissot)와 지롱드파는 프랑스의 공격성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으로 전쟁 도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반면에, 비어(Adolf Beer)는 프로이센의 영토 팽창 정책이 전쟁을 부른 주범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Friedrich Wilhelm II)가 1790년 가을부터 비밀리에 프랑스의 영토를 병합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미국의 로드(Robert H. Lord)에 따르면, 프로이센이 전쟁에 뛰어들 것은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령(領)이었던 벨기에를 공격해서 오스트리아와의 방위동맹을 가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토를 차지하려는 열망 때문에 정세를 잘못 판단한 결과였다.¹⁴⁾

프랑스 책임론을 지지하는 학자들 가운데에는 프랑스 연구자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대부분 혁명 프랑스가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쟁을 선택했다는 일종의 “사회적 제국주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송(Georges Michon)과 소불(Albert Soboul)이 대표적이다. 자코뱅적 혁명 해석을 옹호하는 미송은 지롱드파가 전쟁을 원했고 도발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외국의 공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쟁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사회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기획되었을 뿐이다. 6개월 동안 민주파를 분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인 전쟁이 이 때 시도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정부에 독재 권력을 부여할 것이고, 그 덕에 혁명의 적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롱드파에게 전쟁은 국내 정치를 위한 거대한 책략이었다.”¹⁵⁾ 소불도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상인 부르

13) Heinrich von Sybel(tr. by Walter C. Perry),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Vol. 1(London, 1867), pp. 371-404.

14) Robert H. Lord, *The Second Partition of Poland*(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15), pp. 269-271.

15) Georges Michon, *Essai sur l'histoire du parti Feuillant*(Paris, 1924), p. 359. T. C. W. Blanning,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p. 71에서 재인용.

주아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롱드파의 정략적 판단에 강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지롱드파를 지지하는 상인 부르주아들은 전쟁으로 아시아의 가치가 회복되고 군납업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는 것이다.¹⁶⁾

물론 소불이 혁명전쟁을 특정 정파의 작품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그에게 혁명전쟁은 무엇보다도 ‘원칙의 문제’였다. 즉 특권계급에 대한 제3신분의 전쟁이자 구체제 유럽의 열강들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전쟁으로 국민적인 동시에 혁명적인 싸움이었다. 이러한 견해가 바로 세 번째 부류의 해석이다. 랑케(Leopold von Ranke)가 말한 “국가들 사이의 충돌이자 원칙의 충돌”, 즉 “구체제의 군주제적 보수주의와 혁명의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사이의 충돌”이 바로 프랑스 혁명전쟁이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국왕의 대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그것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군주정과 공화정” 즉 신구(新舊) 이데올로기들 사이의 결투였던 것이다. 하우스저(Ludwig Häusser)가 보기에, 필니츠(Pillnitz) 선언이나 코블렌츠(Koblenz) 선언과 같이 프랑스 밖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보조적인 요인에 불과했고, 전쟁은 기본적으로 혁명이 프랑스의 낡은 법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제법도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¹⁷⁾ 프랑스의 혁명가들은 혁명 이데올로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자 했고, 유럽의 군주들은 혁명이념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국경에 방역선을 치고 ‘병원굴’의 원천인 혁명을 막벌하려 했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버크(Edmund Burke)의 표현에 따르면, “잉글랜드는 무장한 이데올로기와 싸우고 있었다.”¹⁸⁾ 한마디로 말해서, 혁명전쟁은 원칙들의 불가피한 충돌이었고, 따라서 전쟁의 발발은 시간문제였다.

월트(Stephen Walt)가 지적했듯이, 이 각각의 견해는 혁명과 전쟁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총체적인 설명에 이르지

16) 소불에 따르면 “민중의 압력과 국왕이 이끌던 귀족 반동의 틈바구니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부르주아지는 대내적인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대외적인 곤란을 악화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부르주아지는 국왕과 공모해 프랑스와 혁명을 전쟁의 와중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Albert Soboul, 『프랑스대혁명사 上』, 최갑수 역(두레, 1984), 221쪽.

17) T. C. W. Blanning,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pp. 70, 76.

18) Stephen Walt, “Revolution and War”, *World Politics*, Vol. 44, No. 3(Apr. 1992), p. 325에서 재인용.

못하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혁명 이념을 수출하려는 시도가 전쟁을 야기했다는 세 번째 입장은 전쟁을 혁명 체제의 공격성의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이다. 실제 전쟁 발발 전까지 혁명 프랑스의 외교정책은 매우 수세적이어서, 혁명이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혁명 국가의 국내 상황에서 혁명전쟁의 기원을 찾는 두 번째 입장은 결국 혁명 국가 내부의 갈등이 외부에 대한 공격성을 증대했다고 보는 것인데, 엘리트 분파들 사이의 갈등과 혁명 정부에 대한 민중의 압력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갈등이 증폭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혁명으로 급조된 정부는 전쟁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다.¹⁹⁾ 이제 막 권력을 잡은 혁명가들이 다수의 적대 국가들과 전쟁에 돌입해서 어렵사리 획득한 지위를 스스로 위태롭게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경시되었다.²⁰⁾

이와 같이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일반론적 접근은 그 설득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혁명과 전쟁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혁명전쟁의 필연성을 운위하기 전에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 즉 혁명 국가의 내부 상황, 국제적인 역학관계, 혁명 이념과 그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경과와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원인만 보더라도 프랑스 혁명전쟁은 다층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한 편의 논문에서 혁명전쟁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개괄적인 소개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동시에 프랑스 혁명전쟁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우리 학계의 현실을 고려해서,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혁명전쟁의 기원 문제를 프랑스 혁명의 내적 논리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된 ‘이 전쟁’은 단일한 전쟁이 아니다. 1792-1815년 사이에 혁명 프랑스와 이에 맞선 유럽 국가들은 ‘혁명전쟁’

19) 군사전문가인 위블로(Emmanuel Hublot)에 따르면, 1939년 9월에 그랬듯이, 1792년 4월의 프랑스는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혁명으로 정규군 병력이 감소했고, 의용병은 아직 전투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 훈련이 안 되어 있었다. Emmanuel Hublot, *Valmy ou la défense de la nation par les arms*(Paris; Fondation pour les Etudes de défense nationale, 1987), pp. 119-120.

20) Stephen Walt, “Revolution and War”, pp. 325-330.

과 ‘나폴레옹 전쟁’이라 불리게 될 7차례의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들은 정치적·군사적 맥락에서 볼 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²¹⁾ 더욱이 이 시기에 전쟁의 정치적 함의가 앞에서 살펴본 군사적 측면에서의 변화들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변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지적했듯이,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느닷없이 다시 인민이 해야 할 일이 되었으며, 그것도 스스로를 모두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3천만 인민의 일이 되었다. … 인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제 정부와 군대 대신에 전체 인민이 그 자연스러운 힘을 지닌 채 전쟁의 저울판에 오르게 되었다. … 전쟁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갖고 수행될 수밖에 없었고 이 힘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 결과 이제 적의 위협은 극단적인 것이 되었다.”²²⁾ 이제 전쟁은 왕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혁명 프랑스가 1790년 5월 22일 제헌국민의회의 입법을 통해 정복 전쟁 포기를 선언하고 1791년의 헌법에 이를 명기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²³⁾ 이러한 결과는 역설적이다 못해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왜 입법의회는 전임자들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채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선전포고를 했을까? 새로이 선언된 혁명 이념도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역사가 보여주듯이 혁명과 전쟁은 불가분의 관계²⁴⁾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혁명전쟁의 기원과 성격을 고찰해보면, 기본적으로 프랑스사(史)의 틀 안에서 혁명의 성과와 의의를 논의하던 이제까지의 방식을 뛰어넘어, 유럽사 더 나아가 세계사의 차원에서 프랑스 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1) Gunther Rothenberg, “The Origins, Causes, and Extention of the Wars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Napoleo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18, No. 4,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Spring, 1988), pp. 772-773.

22) Carl von Clausewitz, 『전쟁론』, 제3권, 김만수 역(갈무리, 2009), 147쪽.

23) 1790년 5월 22일 제헌국민의회는 “프랑스 국민은 정복을 위한 어떠한 전쟁도 거부하며, 결코 다른 인민의 자유에 맞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Archives parlementaires*, t. 15(Paris, 1883), p. 662.

24) 박윤덕, 『시민혁명』(책세상, 2010), 33, 94쪽 참조 바람.

II. 구체제 유럽과 프랑스 혁명

1. 대서양 혁명과 “피억압자들의 엘도라도”

미국의 역사가 파머(Robert R. Palmer)는 『민주혁명의 시대: 유럽과 아메리카의 정치사 1760-1800』에서, 18세기 후반 대서양 양안(兩岸)에서 확산되고 있던 민주주의와 평등의 이념이 특권계급의 지배에 도전하면서 아메리카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혁명과 반란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²⁵⁾ 그의 “대서양 혁명론”은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폄하하고, 동유럽 사회주의 세력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저의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받았지만,²⁶⁾ 18세기 후반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나타나고 있던 정치적 변혁의 큰 흐름을 포착해 내는 역사가의 혜안을 보여주고 있다.

1770-80년대에 대서양 양안을 요동치게 했던 혁명운동은 1769년 코르시카의 독립투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1755년 파올리(Pascal Paoli)의 영도 아래 독립을 선언한 코르시카는 오랜 전쟁 끝에 1763년 제노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²⁷⁾ 그러나 제노아는 이듬해 비밀리에 코르시카를 프랑스에 양도했고, 만반의 준비를 한 프랑스는 1768년 코르시카 합병을 선언했다. 코르시카 인민들은 프랑스 점령군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였지만 패퇴했고, 파올리는 영국으로 망명했다. 18세기 후반의 혁명운동을 완결하게 될 프랑스가 그 첫 번째 봉기인 코르시카 독립운동을 진압했고, 코르시카 출신의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종결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비슷한 시기에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에서도 본국 정부의 강압적 조치에 불만을 품은 식민지 주민들의 항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1775년에 시작된 이들의 독립전쟁은 “아메리카 국가연합(USA)”의 탄생으로 이어

25) Robert R. Palmer, *The Age of the Democratic Revolution: A Political History of Europe and America, 1760-1800*(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9-1964).

26) Marvin Cox, “A Reassessment of R. R. Palmer’s *The Age of Democratic Revolution*”, *The History Teacher*, Vol. 24, No. 3(May, 1991), pp.345-346.

27) 독립 쟁취 후 파올리가 단행한 일련의 개혁 조치에 관심을 갖게 된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코르시카 헌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Jean-Clément Martin, *La France en Révolution 1789-1799*(Paris: Editions Belin, 1990), p. 30.

졌다. 대영제국에 대한 저항은 아일랜드에서도 끊이지 않았는데, 자치의회, 참정권, 상업의 자유 등이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었다. 한때 버크의 지지를 받았던 아일랜드 개혁운동은 1780년대에 이르면 무장봉기로 발전하였다. 혁명적 변화를 지지하는 영국인들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단호한 대응으로 아일랜드의 독립지를 꺾었고, 그 덕에 영국은 혁명적 흐름을 가까스로 비껴갈 수 있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1782년 시민들이 도시 행정을 장악한 귀족들에 맞서 봉기했는데, 구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외세의 개입이 필요했다.²⁸⁾

네덜란드에서는 1787년 애국파의 반란이 영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이센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에서는 언어의 통일, 인신예속제의 폐지, 교단과 예배의식의 세속화 등 조세프 2세(Joseph II)의 갑작스런 개혁 정치가 정치적 불안을 야기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종교생활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결국 1789-90년 폭동에 가담했다. 벨기에에서는 “국가주의자”라고 불린 보수주의자들과 봉크주의자(Vonckist)²⁹⁾라 불린 애국파가 모두 황제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시도했지만, 1790년 오스트리아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스웨덴, 덴마크, 러시아에서도 계몽전제군주들이 고문을 폐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을 허용하는 등 정치·사회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긴장을 초래했고, 결국 폭동을 야기했다.³⁰⁾

역사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은 각기 달랐지만, 이 운동들은 모두 계몽사상의 영향 아래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와 자율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정치적 움직임이었다. 아메리카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정치적 변혁은 좌절되었고, 각국의 “애국파들”은 프랑스로 망명했다. 프랑스는 절대왕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따라 이들을 후원했고, 계몽사상의 본향(本鄉)으로서 정치적 망명자들을 환대했다. 네덜란드로부터 약 5천 명의 망명자들이 몰려왔는데, 그 가운데 장차 프랑스

28) *Ibid.*, pp. 26-29.

29) 1789-90년 봉기를 주도했던 봉크(Jean-François Vonck, 1743-1792)를 추종하는 벨기에 민주파. 봉크는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받아 삼권분립의 중앙집권적인 민주정부 수립을 주창했다. Albert Mathiez, *La Révolution et les étrangers. Cosmopolitanisme et défense nationale*(Paris: La Renaissance du Livre, 1918), pp. 9-11.

30) Jean-Clément Martin, *La France en Révolution 1789-1799*, pp. 29-30.

입법의회 의장이 될 다버우트(Daverhoul)가 있었다. 벨기에 망명자들은 혁명 프랑스를 위해 복무하게 될 벨기에 군단(Légion belge)을 조직했고, 스위스 망명자들은 그들만의 클럽³¹⁾을 결성할 정도로 그 수가 많았는데, 나중에 혁명정부의 외무장관³²⁾과 재무장관³³⁾이 그들 가운데서 배출되었다.

이와 같이 혁명 전부터 군주제 유럽에서 “피억압자들의 엘도라도”였던 파리는 프랑스 혁명의 발발과 함께 혁명적 국제주의의 산실이 되었다.³⁴⁾ 바스티유 함락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럽 도처에서 “자유의 순례자들”이 파리로 몰려들었고, 각국의 망명자들은 그들만의 신문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서 조국 해방전쟁을 설파했다.³⁵⁾ 1790년 6월 19일, 아랍, 시리아, 인도, 프로이센과 독일, 폴란드, 잉글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 에스파냐, 아메리카, 아비뇽, 제네바, 사르데냐, 시칠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외국인 대표단이 제헌국민의회에 나타나 자신들도 연맹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을 대표해서 연단에 오른 클루트(Jean-Baptiste Cloots-Anacharsis)는 프랑스 혁명이 지닌 보편적 호소력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인민의 부활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가 세계의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2천 5백만 자유인이 부르는 환희의 송가는 오래 동안 노예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웠다. … 그들(연맹체에 참여할 외국인들)이 높이 들어 올릴 자유의 모자는 장차 불행한 동포들의 해방을 보증할 것이다. 로마의 개선장군은 그가 정복한 사람들을 전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즐겨워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은 당신들의 대열 속에서, 지금은 그 조국이 사슬에 묶여 있지만, 당신들의 용기와 계몽된 법 덕분에 언젠가 그 조국이 해방될 자유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³⁶⁾

선언의 주체가 “우리”인 「아메리카 독립선언」과 달리,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주인공이 그저 “인간”인 것은 부분적으로는 보편성의 토대 위에 형성된 혁명적 국제주의의 영향 때문이었다. 보벨(Michel Vovelle)이 지적했듯이, “대서양 혁명의 시대”에 다른 많은 선언들이 있었지만, 이와

31) Club helvétique.

32) Pierre Henri Hélène Lebrun-Tondu(1754-1893).

33) Étienne Clavière(1735-1793).

34) Jean-Clément Martin, *La France en Révolution 1789-1799*, p. 28.

35) Albert Mathiez, *La Révolution et les étrangers*, pp. 13-28, 32-36. 영국의 시인 워즈워드(Wordsworth)와 러시아 작가 카람진(Karamzine)도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36) *Archives parlementaires*, t. 16(Paris, 1883), p. 373.

같은 보편성을 지닌 선언은 하나도 없었다.³⁷⁾ 혁명을 피해 조국을 등지고 국경 저편에서 “프랑스를 구하자! 국왕을 구하자!”라고 외쳤던 수많은 프랑스인들만큼이나, 혁명을 위해 조국을 등지고 국경 이편에서 “조국을 해방하자! 동포를 해방하자!”고 외쳤던 수많은 외국인 망명객들도 프랑스 혁명전쟁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브리소가 주창한 “자유의 십자군”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 혁명 입법과 봉건 유럽

프랑스 혁명이 유럽 도처에서 공감과 흥분을 불러일으켰던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큰 반감과 혐오를 야기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혁명의 전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혁명이 가져온 실질적 변화가 봉건적인 구체제 유럽에 가한 충격 때문이었다.

1789년 여름 제헌국민의회는 프랑스 전역을 휩쓴 대공포와 농민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8월 4일 밤 봉건제 폐지를 선언했다. 미라보(Mirabeau) 백작의 표현대로, 제헌의원들은 하루 밤 사이에 프랑스 왕정의 모든 낡은 질서를 뒤엎었는데, 선언의 영향은 이내 프랑스 국경인 라인 강을 넘어 독일 땅으로 파급되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알자스는 프랑스 왕국의 영토가 되었지만, 합병 이전부터 영지를 보유하고 있던 독일 영주들은 영주로서 영주권, 사법권, 그리고 종교에 관한 권리를 영원히 보장받았다. 따라서 8월 4일 밤의 선언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간주한 독일 영주들은 신성로마제국 의회에 이에 대한 항의를 프랑스 측에 전달하라고 요구했다.³⁸⁾

이와 같이 8월 4일 밤의 선언은 법리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다. 과거에 프랑스 국왕이 승인한 조약들이 국민의회를 통해서 프랑스 인민이 행사하는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프랑스 국내법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을 예외로 인정해야 하는가? 제헌국민의회는 오랜 기간 심사숙고했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1790년 10월 28일 봉건제 위원회를 대표해서 메를랭 드 두에(Merlin de Douai)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37) Michel Vovelle, 『왕정의 몰락과 프랑스 혁명 1787-1792』, 최갑수 외역(일일서각, 1987), 199쪽.

38) T. C. W. Blanning,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pp. 74, 77; Albert Soboul, 『프랑스대혁명사 上』, 212쪽.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인 알자스인 사이에는 지난해 바로 이 의회에서 모든 프랑스인 사이에 형성된 사회계약 이외에 다른 어떠한 통합의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자스 인민의 동의 없이 체결된 조약은 그들이 동의하지 않은 권리에 합법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민의 권리를 규제하는 것은 군주들의 조약이 아닙니다.… 알자스 사람들이 프랑스인이 된 것이 외교문서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전제주의 시대에 알자스인을 프랑스에 결속시킬 목적으로 체결되었던 조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자스 인민은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프랑스 인민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을 정당화하는 것은 윈스터 조약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의지인 것입니다.³⁹⁾

1790년 11월 제헌국민의회는 알자스가 1790년 7월 14일의 연맹제에 참가했다는 사실이 입증하는 것처럼 그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프랑스의 일부가 되었다고 선언했다.⁴⁰⁾ 국민주권과 민족자결의 새로운 원칙은 세습을 통해 영지와 권리를 상속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산제적(家産制的)이고 봉건적인, 왕조 중심의 근대국가체제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프랑스에 합병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1790년 6월 11일, 교황의 지배 아래 있는 아비뇽(Avignon)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교황 관리들을 내쫓고, 투표로 프랑스와의 합병을 결정했다. 얼마 뒤 또 다른 교황령 브네생 백작령(Comtat-Venaissin)이 아비뇽의 뒤를 따랐다. 프랑스와의 합병을 요청하는 아비뇽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서 페티옹(Jérôme Pétion de Villeneuve)은 1790년 11월 16일 “그 주민들이 더 이상 교황을 그들의 지배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비뇽은 더 이상 교황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비뇽 주민들의 뜻에 따라 프랑스가 아비뇽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틀 뒤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도 “국민의회는 아비뇽 시와 그 부속 영토를 프랑스 제국의 일부라고 선언하고, 프랑스의 법이 그곳에서도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법령을 아비뇽 시에 보내라”고 제안했다.⁴¹⁾

제헌국민의회는 교황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표결에서 근소

39) *Archives parlementaires*, t. 20(Paris, 1885), pp. 75-83.

40) Albert Soboul, 『프랑스대혁명사 上』, 213쪽.

41) *Archives parlementaires*, t. 20, p. 481, 530.

한 차이로 합병 안을 부결시켰지만, 임기 종료 직전인 1791년 9월 14일 “시민 다수에 의해 자유롭고 엄숙하게 표현된 소망에 따라” 아버지과 브네생 백작령의 합병을 승인하였다.⁴²⁾ 제헌국민의회는 국민주권과 민족자결의 새로운 원칙이 결국은 혁명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서 합병을 원하는 인민을 병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파리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 메르시(Mercy) 백작이 지적했듯이, 제헌국민의회는 이 결정을 통해서 유럽의 다른 모든 국가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차가지였다.⁴³⁾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1790년 5월 14일 제헌국민의회가 녹타(Nookta) 해협 위기로 야기된 국제적 긴장과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1789년 5월 밴쿠버(Vancouver) 섬 서해안의 녹타 해협을 지나던 영국 상선 3척을 에스파냐 전함이 나포했는데, 이 소식이 거의 1년이 지나 유럽에 알려지면서 이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던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1776년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로 진출한 이래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에스파냐와 교역망을 확대하며 이 지역을 식민지화하려는 영국 사이에 또 다른 식민지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⁴⁴⁾ 에스파냐가 부르봉 왕가의 일원으로서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 프랑스의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⁴⁵⁾

국왕 루이 16세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14척의 전함을 비상 대기하도록 명령했다는 외무대신 몽모랭(Montmorin)의 보고⁴⁶⁾를 접한 국민의회는 구체적인 상황과 국민의 이해관계를 검토하기 전에 원칙의 문제를 제기했다. 라메트(Alexandre de Lameth)는 아무도 국왕의 조치를 비난할 수 없다고 운을 댄 뒤, “주권자 국민이 국왕에게 전쟁과 강화의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의회가 관할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⁷⁾ 페

42) *Archives parlementaires*, t. 30(Paris, 1888), p. 631.

43) Emile Bourgeois, *Manuel historique de politique étrangère*, t. 2(Paris: Belin Frères, 1897), p. 47.

44) 1790년 5월 5일 영국 정부는 의회에 에스파냐와의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렸고, 하원은 5월 10일 전쟁 준비를 위해 100만 파운드의 지출을 의결했다. Albert Sorel, *L'Europ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t. 2(Paris: Librairie Plon, 1885), pp. 84-85.

45) T. C. W. Blanning,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pp. 61, 79.

46) *Archives parlementaires*, t. 15, p. 510.

47) *Ibid.*, p. 516.

티옹은 모든 정복을 거부한다고 선언할 것을 제안하면서, 입법부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만 집행부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 집행부가 제안한 강화조건을 입법부가 검토해서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⁴⁸⁾ 이는 의회가 군사·외교정책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보수파는 이상주의적이고 원론적인 제안에 맞서, 다수로 구성된 회의체는 쉽게 타락할 수 있고,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동맹, 전쟁, 강화의 문제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왕에게 전쟁과 강화의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보기에, 입법부는 국왕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에 대한 거부권”과 “평화조약에 대한 비준권”만 확보하면 충분했다. 이번에도 로베스피에르가 페티옹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에 따르면, 국왕은 국민의 ‘대표(représentant)’가 아니라 일반의지를 집행하는 ‘관리(commis)’일 뿐이다. ‘대표’란 국민에 의해 국민의 의지를 표명하도록 특별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이다. 아무리 존엄할지라도 다른 모든 권력은 인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전쟁과 강화의 권한은 국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들에게 위임되어야 한다.⁴⁹⁾

일주일에 걸친 논쟁 끝에 제헌국민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전쟁과 강화에 관한 결정권은 국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가 안보를 돌볼 책임은 헌법에 의해서 국왕에게 위임된다. 정복 전쟁도, 영토 분할도, 비밀 외교도 인정하지 않은 제헌국민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자유에 맞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영국에 대한 전쟁 준비를 중단시켰다. 앞으로 모든 선전포고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⁵⁰⁾

제헌국민의회는 이러한 평화주의가 동맹체제와 무력시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라보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유럽 앞에서 프랑스를 무장해제한다면, 영구적인 평화는 한낱 위험한 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군주들보다 국민들을 더, 특히 프랑스 국민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인민들이 두드러졌던 것은 언제나 더 야심차고 야만스러운 전쟁에 의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들이 여기에서 전쟁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 열정의 움직임이 당신들을 절대 위

48) *Ibid.*, p. 544.

49) *Ibid.*, p. 559.

50) *Ibid.*, pp. 661-662.

험한 전쟁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시오. 그러나 카이사르가 위협했던 것은 로마를 위해서였다.”고 일갈했다. 이와 같이 미라보는 전쟁에 관한 논의에서 의원들이 승전을 확신하는 민중의 열정에 이끌려 전쟁을 선택하게 되리라는 점을 예견했다. 하지만, 미라보는 그의 선견지명이 사실로 입증되기 전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⁵¹⁾

III. 반혁명과 혁명전쟁

1. 바렌 탈주와 혁명의 급진화

1791년 9월 14일, 루이 16세가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승인했다는 소식은 제헌국민회의의 수세적이고 평화주의적인 외교 정책 못지않게 유럽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 것처럼 보인다. 1791년 9월 30일, 제헌국민회의 의장 투레(Jacques-Guillaume Thouret)는 국왕의 폐회식 연설에 화답하며 “폐하가 헌법을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혁명을 끝냈다.”고 선언했다.⁵²⁾ 제헌의원들처럼 유럽의 군주들도 이로써 혁명이 끝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재상 카우니츠(Kaunitz)는 “신은 모든 사람을 긴장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프랑스 국왕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는 “마침내 유럽의 평화가 보장되었다.”고 기뻐했다.⁵³⁾ 그러나 루이 16세의 바렌(Varennes) 탈주는 잦아 들던 혁명의 물결을 다시 소용돌이치게 만들었고,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었다. ‘국왕납치설’로 국왕의 배신을 호도하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 해도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1790년 7월 14일, 조국의 제단에서 “국민과 국법에 충실할 것”을 맹세했던 루이 16세는 어쩔 수 없이 혁명을 승인했을 뿐, 결코 절대왕권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이미 그해 1월 “짐은 이런 처지에서 프랑스의 국왕으로 머무느니

51) Albert Sorel, *L'Europ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t. 2, pp. 86-87; T. C. W. Blanning,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p. 76.

52) *Archives parlementaires*, t. 31(Paris, 1888), p. 689.

53) Gunther Rothenberg, “The Origins, Causes, and Extention of the Wars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Napoleon”, pp. 780-781.

차라리 메스(Metz)의 왕이 되고 싶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곧 끝날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⁵⁴⁾ 나중에 발견된 비밀 서신들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루이 16세는 망명 귀족들의 지원을 받아 외국으로 탈출해서 오스트리아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혁명을 전복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다.

1791년 초부터 반혁명 책동이 강화되었다. 국경 근처에 집결해 있던 망명 귀족들은 외국 군대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국내에서는 반혁명 세력이 국유 재산 매각을 방해하고, 아시아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선서 거부 사제들은 제헌국민회의의 종교정책을 규탄하면서 저항을 선동하고 있었다. 2월에 루이 16세의 고모들이 로마로 망명길에 올랐을 때, 파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반혁명 음모를 걱정하며 동요했다. 2월 28일 파리에서는 민중들이 뱅센(Vincenne) 성을 파괴하려 한다는 소식들 듣고 라파에트가 국민방위대를 이끌고 출동한 사이, “단검의 기사들”이라 불린 일단의 귀족들이 국왕의 거처인 툴리 궁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뱅센의 소요는 궁정에 의해 조작되었으며 단검의 기사들은 국민방위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국왕의 탈출을 엄호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⁵⁵⁾

프랑스 혁명에 대한 유럽 열강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다. 혁명 프랑스에 대한 각국의 외교적 대응은 다양각색이었으나, 혁명에 대한 적대감에서는 하나였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Ekaterina II)는 “프랑스의 무정부 상태를 타파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불멸의 영광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외쳐댔다. 3월 10일, 교황 피우 6세(Pius VI)는 혁명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탄핵했고, 에스파냐 정부는 “프랑스 역병”을 막기 위해 피레네 산맥에 군사 방역선을 폈다. 스웨덴의 구스타프 3세(Gustav III)는 유럽의 반혁명 동맹을 주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도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루이 16세의 처남인 오스트리아 황제 레오폴드 2세는 5월, 비밀리에 루이 16세의 동생 아르투아(Artois) 백작을 만나 반혁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해 토의했다. 그러나 혁명 프랑스를 전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파리 민중의 포로가 된 루이 16세와 왕가를 구출하는 것이 급선무였다.⁵⁶⁾

1791년 6월 20일 밤 시도된 국왕의 탈주는 바렌에서 민중에 의해 저지되었고, 어가(御駕)는 “군주제의 장송행렬”과 함께 파리로 압송되었다. 바렌 탈

54) Albert Mathiez, 『프랑스혁명사 上』, 김종철 역(창작과 비평사, 1982), 150쪽.

55) Albert Soboul, 『프랑스대혁명사 上』, 204쪽.

56) 같은 책, 212쪽.

주의 즉각적인 결과는 애국파의 분열이었다. 제헌국민회의의 부르주아들은 “국왕납치설”로 상황을 호도하려 했다. 입헌군주제의 수립과 함께 혁명을 마무리 짓고자 했던 그들에게, 신체제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할 국왕이 도주했다는 사실은 체제가 확립하기도 전에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왕의 배신을 목도한 민중은 국왕을 용서하지 않았다. 민중은 우선 자위 태세를 취했다. 국왕의 탈주는 침략이 임박했다는 증거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1789년 8월과 같은 공포의 물결이 일어났고, 국경의 요새들은 자발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⁵⁷⁾ 민중과 급진파는 루이 16세를 국민의 적으로 규탄하고 군주제와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군주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민중과 신문 『파리의 혁명』은 루이 16세를 반국가범죄자로서 재판하라고 촉구했다. 7월 15일, 제헌의회가 국왕은 불가침이라고 선언한 바로 그날, 코르들리에 클럽은 변호사 로베르(Pierre-François Robert)가 작성한 청원서를 발표하고 공화정을 요구했다. 수천의 시민들이 청원서에서명하기 위해서 샹드마르스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국민의회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라파예트의 지휘 하에 파리 국민방위대가 사전 경고도 없이 비무장 군중에게 발포해서 50여 명이 사살되었다.⁵⁸⁾

국왕의 바렌 탈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비교적 평화롭게 전개되었던 프랑스 혁명은 대내외적인 전쟁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레오폴드 2세는 1791년 7월 6일 유럽의 군주들에게 프랑스 왕가를 구하기 위해서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8월 27일에는 필니츠(Pillnitz)에서 프로이센 국왕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협력하에 필요한 무력을 가지고 즉각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실 필니츠 선언은 “유럽의 군주들이 그들의 능력에 비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수사(修辭)에 불과했다. 중립을 유지하고 있던 영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다.⁵⁹⁾ 그러나 필니츠 선언이 유럽의 군주들에게 프랑스 혁명을 파괴하기 위해 동맹할 것을 제안하고 공동보조를 모색함에 따라 프랑스도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57) Timothy Tackett, *When the king took flight*(Cambridge: Harvard Univ. Press, 2003)를 참조하기 바람.

58) Albert Soboul, 『프랑스대혁명사 上』, 216-217쪽.

59) T. C. W. Blanning,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pp. 86-87.

공화파의 왕정 폐지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제헌국민의회는 입법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왕권을 정지시키는 한편, 군 장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급 부대에 대표를 파견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군 장교들이 ‘국왕’이 빠진 ‘국민’과 ‘국법’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했고, 장교들의 망명과 이념 논쟁으로 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다. 국민의회는 공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부사관의 장교 진급과 의용병의 입대를 허용하고, 백기 대신 삼색기를 군기로 채택했다. 군의 정치화가 강화됨에 따라 군과 국민의 동맹도 강화될 것이었다.⁶⁰⁾ 이와 같이 두 개의 대립된 진영으로 세력이 결집되면서 전쟁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졌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반혁명의 위험 또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791년 헌법의 발효 및 입법의회와 개원과 함께 상황은 일단 진정되는 듯이 보였다.

2. 입법의회와 혁명전쟁

1791년 헌법의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입법의회는 1791년 5월 16일의 법으로 제헌의원들 스스로 피선거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745명 전원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재산제한선거로 선출된 입법의원들은 대부분 부르주아 출신이었지만, 제헌의원들보다 훨씬 젊었고, 국왕의 바레 탈주로 야기된 긴장된 분위기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전임자들보다 조금 더 급진적이었다. 하지만 처음에 입법의회를 지배한 것은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며 자코뱅 클럽을 탈퇴한 피앙파(Feuillants)였다.

1791년 헌법의 토대 위에 혁명을 안착시키고자 했던 피앙파는 264석을 확보해서 최대 파벌을 형성했지만, 이른바 3거두(triumvirate)⁶¹⁾를 지지하는 세력과 라파에트파로 양분되었다. 피앙파에 맞서 아직 ‘미완의 혁명’을 그 논리적 귀결까지 밀고나가려 했던 136명의 자코뱅파(Jacobins)는 브리소와 베르니오(Pierre Vergniaud)를 중심으로 힘을 모았는데, 이들도 나중에 자체 분열해서 지롱드파(Girondins)와 자코뱅파로 나뉜다. 나머지 345명은 “독립파”를 자처하며 현안에 따라 입장을 바꾸었다.⁶²⁾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노선을 달리하는 여러 정파들이 권력투쟁을 벌였지만,

60) Jean-Clément Martin, *La France en Révolution 1789-1799*, pp. 116-117.

61) 뒤포르(Adrien Duport), 바르나브(Antoine Barnave), 라메트를 지칭함.

62) Jean-Clément Martin, *La France en Révolution 1789-1799*, p. 119.

입법의회에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792년 4월 20일의 선전포고가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1791년 10월 1일, 입법의회가 개원하던 날, 혁명 프랑스 안팎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도시와 농촌에서 물가고에 대한 항의의 물결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시나의 가치 하락과 서인도 제도의 흑인폭동의 결과로 야기된 커피, 설탕 등 생필품 품귀 현상으로 식료품 가격이 앙등하자 식량폭동이 확산되었다. 농촌에서는 봉건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었다. 농민들은 봉건적 부과조의 납부를 거부하면서, 망명 귀족들의 성을 공격했다. 선서거부 성직자들은 신도들에게 폭동을 사주하면서 반혁명의 대열에 가담했다. 국내의 불안은 반혁명 책동과 전쟁의 위협 때문에 더욱 가중되었다. 루이 16세의 탈주가 실패한 이후, 혁명은 더 이상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프로방스(Provence) 백작의 망명으로 힘을 얻은 망명 귀족들은 코블렌츠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혁명 프랑스에 대한 침공을 예고하면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상황이 악화되는 시기에 온건한 타협정책이 유지되기 힘들었기 때문에, 피이앙파의 정국(政局) 장악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피이앙파인 나르본(Narbonne)의 외무대신 취임이나 민주파인 페티옹의 파리 시장 선출에서 드러나듯이, 바렌 탈주 이후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정통성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입법의회는 제한선거였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했고,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혁명의회로서 집행부를 능가할 수 있었다.⁶³⁾ 그러나 좌우파의 정치 공세로 의회 내 최대 파벌인 피이앙파의 입지가 축소되면서 입법의회는 권력투쟁의 장으로 전락해갔고, 민중의 지지를 확보할 만큼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던 피이앙파는 라파예트에게 달려갔지만, 그는 개인적 야망 때문에 그들의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다. 라파예트는 왕권이 유지·강화되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왕실과의 동맹도 불완전

63) 실제로 입법의회는 제헌의회 시기에는 7개에 불과했던 특별위원회를 23개나 설치해서 국왕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었다. T. C. W. Blanning, *The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ary Wars*, pp. 96-97.

했다. 국왕 루이 16세는 입법의회(이하)의 개원과 함께 왕권을 회복했지만, 더 이상 절대 군주도 헌법상의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입헌 군주도 될 수 없었다. 국민을 배신하고 반혁명 세력과 내통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종의 “무정부상태”라 할 수 있는 권력 공백 속에서 정쟁(政爭)이 격화되었다.⁶⁴⁾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의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반혁명이었다. 1791년 10월 20일, 브리소는 구체제를 복원하기 위한 거대한 국제적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브리소는 유럽 열강들이 혁명에 가한 모욕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들에 의지하고 있는 망명자들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동맹하고, 러시아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오스만 제국과 휴전하는 등 언뜻 이해할 수 없는 국제 정세의 변화들은 프랑스에 대한 반혁명 음모의 존재를 입증해준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혁명 프랑스의 잠재적 적들은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식민지 문제로, 오스트리아는 재정 문제로,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으로, 러시아는 전쟁 피로와 농노 반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반혁명 동맹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전쟁이었다.⁶⁵⁾ 입법의회는 반혁명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여가며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10월 31일 망명자들에게 1792년 1월 1일까지 해산할 것을 명령했고, 열흘 뒤에는 국왕으로 하여금 외국 군주들에게 망명자 무리를 해산시키도록 요청하게 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의 법은 성직자들에게 1791년 헌법에 대한 충성 서약을 강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상황을 타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켰다. 반혁명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면 될수록 혁명에 대한 저항도 강렬해졌기 때문이다.

각 정파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전불사를 외치며 전쟁으로 치달았다. 라파예트와 피이앙파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계산에서 전쟁을 주장했다. 브리소를 중심으로 한 지롱드파의 생각에, 전쟁은 애국적 열정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분쟁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전쟁 특수를 통해서 부르주아 사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의 신용을 회복시킬 것이었다. 또한 전쟁을 통해서 혁

64) Jean-Clément Martin, *La France en Révolution 1789-1799*, p. 116.

65) *Archives parlementaires*, t. 34(Paris, 1890), pp. 309-317.

명을 국경 너머로 확산시킴으로써, 유럽 절대왕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압박 약소민족들을 해방시키는 “자유를 위한 십자군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었다. 로베스피에르만이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전쟁을 반대했다. 귀족 출신 장교들의 망명, 병력과 군비의 부족 등 프랑스군의 부실한 상태를 지적하면서, 전쟁은 망명귀족과 궁정, 그리고 라파예트파의 의도를 만족시켜 주는 것일 뿐이라고 역설하고, 국내 정세에 눈을 돌려 우선 자유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쟁취하기도 전에, 외국의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민의 약속을 보장하는 것이다.”⁶⁶⁾

루이 16세도 전쟁을 원했다. 그가 보기에, 프랑스 군대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정예군에 패할 것이고, 프랑스가 패배하면 절대왕정이 복원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리앙투아네트는 9월 8일자 편지에서 오빠인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군대뿐”이라고 호소했다. 루이 16세는 비밀리에 외국의 궁정과 내통하여 전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취했다. 트리어 선거후에게 1792년 1월 15일까지 망명귀족들이 집결시킨 군대를 해산하지 않는다면 “프랑스의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내 놓고, 오스트리아 황제에게는 밀사를 보내 자신의 최후통첩이 거절되기를 희망했다. “그것은 내란이 아니라 대외전쟁이 될 것이며, 사태는 호전될 것이오. 프랑스의 물질적, 도덕적 상황이 어중간한 상태로 프랑스를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오.” 석 달 후, 프로이센의 왕에게도 밀서를 보내 군사적 지원을 촉구했다. 외세의 도움으로 혁명을 전복하려는 궁정에도, 혁명의 대의명분으로 온 나라를 통합하려는 지롱드파에게도 대외전쟁은 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비춰지게 되었다.⁶⁷⁾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군주들은 지롱드파가 주창한 “자유를 위한 십자군”이 자국에 혁명적 봉기를 불러일으키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다. 혁명을 봉쇄하기 위해서 전쟁은 불가피해 보였다. 1792년 2월, 양국은 혁명 프랑스의 공격에 대비한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각각 2만의 병력을 국경 지대에 배치했다. 4월 3일, 레오폴드 2세를 계승한 오스트리아의 새 황제 프란츠 2세는 프로이센군 총사령관 브룬스위크(Brunswick) 공작에게 “프랑스의 군주제를 구하고 무정

66) Albert Soboul, 『프랑스대혁명사 上』, 232쪽.

67) 데이비드 파커 외 지음, 『혁명의 탄생: 근대 유럽을 만든 좌우의 혁명들』, 박윤덕 역 (교양인, 2009), 213쪽.

부상상태의 전염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입법의회는 반혁명 책동을 봉쇄하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망명 귀족들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선언했고, 루이 16세는 지롱드파를 중심으로 한 주전파 내각을 구성했다. 1792년 4월 20일, 입법의회는 열광적 분위기 속에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몇 주 후, 프로이센도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했다. 이와 같이 해서 1815년까지 전 유럽을 동란 속으로 몰아넣게 될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프랑스에서 혁명 운동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왕권은 그 최초의 희생물이 될 것이었다.

IV. 결 론

역사는 혁명과 전쟁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은 혁명을 초래했고 혁명은 전쟁을 야기했다. 근대의 혁명들은 모두 전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가 주민에게 과중한 조세를 요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30년 전쟁은 잉글랜드의 스튜어트 왕정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으며, 아메리카 혁명은 7년 전쟁의 전쟁 부채에 시달리던 영국 정부가 증세 정책을 강행한 데 대한 식민지 주민들의 반발이었고, 루이 16세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것은 바로 아메리카 독립전쟁이었다. 혁명은 기존 체제 안에서 화해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내전이든 대외 전쟁이든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잉글랜드 혁명과 아메리카 혁명이 발발 즉시 전쟁으로 비화한 것과 달리, 프랑스 혁명은 이례적으로 전쟁 상태를 거치지 않고 혁명을 완수하는 것처럼 보였다. 혁명 프랑스는 정복전쟁을 포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불안한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유럽의 열강들은 체제 파괴적인 프랑스의 혁명 입법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모색했다.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신중한 태도의 이면에 혁명을 초래했던 재정위기와 혁명 권력의 불안정성이 있었다면, 대(對) 프랑스 동맹국들의 경우에는, 대서양 혁명의 여파로 인한 국내 정치의 불안, 또 다른 대외 전쟁, 사태 추이를 관망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한때 유럽의 패권을 차지했던 대국으로서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던 물적·인적 자원과 함께, 혁명 초기의 평화는 프랑스가 전 유럽을 상대로 24년간 전쟁을 벌이며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 기간 동안 프랑스는

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었고, 그 덕에 혁명 프랑스를 지키려는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이념이 반혁명으로부터 프랑스를 지켜내는 데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틀림없지만, 국민주권과 민족자결의 혁명이념이 불가피하게 전쟁을 초래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근대 유럽의 국가체제는 프랑스의 절대군주제, 잉글랜드의 입헌군주제, 네덜란드의 제한군주제, 스위스의 공화정 등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국가형태를 그 안에 수용하고 있는 매우 탄력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블레닝이 가정했듯이, 혁명 프랑스와 군주제 유럽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혁명 이념에 따라 한층 더 효율적인 국가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자, 프랑스도 유럽의 열강들도 전통적인 국가체제의 작동 원리에 따라 힘의 논리에 호소하게 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충남대 사학과)

〈투고일자 2014. 1. 22 심사일자 2014. 2. 6 게재확정일자 2014. 2. 10〉

주제어 : 프랑스 혁명(French Revolution), 혁명전쟁(Revolutionary War), 반혁명(Counter-Revolution), 입법의회(Legislative Assembly), 국민주권(National Sovereignty)

〈국문초록〉

프랑스 혁명과 전쟁

박 윤 덕

혁명과 전쟁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근대의 혁명들은 전 비 마련을 위한 증세와 함께 시작되었고, 기존체제 안에서 해소될 수 없는 긴장이 무장투쟁으로 발전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혁명 프랑스는 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정복 전쟁을 포기했고, 인민주권과 민족자결의 혁명이념은 프랑스가 반혁명 세력에 맞서 혁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다.

혁명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혁명이념 자체가 프랑스와 그 이웃 국가들 사이의 전쟁의 필연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유럽은 이미 잉글랜드의 입헌군주제, 프랑스의 절대왕정, 스위스의 공화정과 같은 다양한 정치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지켜 봐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전쟁의 원인은 프랑스가 혁명 이념에 따라 한층 더 효율적인 국가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자, 유럽의 열강들이 전통적인 국가체제의 작동 원리에 따라 힘의 논리에 호소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Résumé〉**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guerre**

Youn-Duk PARK

La révolution et la guerre semblent être inséparables. Les révolutions modernes commencent avec la collecte d'impôts pour financer les guerres et culminent avec la transition des tensions non-solvables au sein du système existant en conflits armés. Afin de maintenir son nouveau système, la France Révolutionnaire abandonne tous projets de guerres conquêtes, et les idées révolutionnaires de souveraineté populaire et de détermination autonome permet à la France de protéger sa Révolution des forces contre-révolutionnaires.

Pourquoi les guerres révolutionnaires ont-elles lieu? Les idées révolutionnaires même ne sont pas nécessairement la cause des guerres entre la France et ses voisins. L'Europe avait déjà l'expérience de voir plusieurs systèmes politiques—y compris la monarchie constitutionnelle du Royaume-Uni, la monarchie absolue de la France, et la République de la Suisse—coexister. La cause des guerres révolutionnaires se trouve dans le fait que la France, munie de ces idées révolutionnaires, réémergeait un fois de plus entant que pays compétitif qui pouvait rivaliser avec les autres forces Européennes. Suivant le mécanisme du maintien de l'équilibre des forces, la France se devait de faire la guerre avec les pays Européens qui la considérait comme la relance d'une menace.

〈Summary〉**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Revolutionary War**

Youn-Duk PARK

Revolution and war seems to go hand in hand. Modern-days revolutions usually start with the levy of heavy taxes to finance wars, and breaks out when the unsolvable tensions plaguing the existing system are turned into armed conflicts. Well aware of these facts, the Revolutionary France attempted to maintained its newly established system by abandoning conquest wars, and the revolutionary ideas of popular sovereignty as well as self-determination enabled France to protect the Revolution from the Counter-Revolutionary powers.

Then, why did revolutionary wars break out? The revolutionary ideas were not necessarily the root cause of the wars between France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Europe have had the experience of different states systems—including, England's constitutional monarchy, France's absolute monarchy, and Switzerland's Republic—coexisting on its land. The cause of the Revolutionary Wars is to be found in the fact that France, now equipped with its revolutionary ideas, was reemerging as a fully efficient and competitive country that would rival other European countries. Operating under the traditional mechanisms of balance of power and the fight for the hegemony of their own political system, France went into war with other European countries who saw France as a reviving threat.